

넷 상에서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요? 한국의 인터넷 사정

2000년대부터 인터넷의 보급이 세계에서 유래없이 급속도로 확대된 한국. 아직도 세계에서 인터넷의 속도가 빠른 랭킹 상위국답게, 넷 상에서의 정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넷 정치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03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 당시 당내에서 기반이 약했던 노무현 후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매니페스트를 알리는 등, 지지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선거운동으로 새로운 지지자들을 많이 모아,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할 거 없이 넷상에서 정치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인 Naver 와 Daum 에 게재된 정치 기사를 보면 코멘트 란에 열띤 논쟁이 펼쳐 집니다. 예전에는 특정 정치가나 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넷 상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개인이 리얼타임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게다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매일 코멘트를 쓰면서, 같은 의견을 가진 이들과 만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각각의 세대에서 이념과 가치관이 교차하면서 매일 같이 많은 수의 글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넷상에 머물지만 않고, 실제로 광장에 모여서 집회나 데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부당한 정책에 대한 항의나, 대통령 탄핵을 주장할 때 등장하는 촛불시위는 넷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열리고 있지요.

또한, 요즘에는 자신의 정치관에 잘 들어맞는 정당에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구독서비스처럼 넷상에서 소정의 당비를 내고 등록하면 정당의 온라인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당의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오프라인 당원과 대위원들에 의해서만 선발되던 대표 선거도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세대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없이 정당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히 대표에게 모든 걸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평소부터 일반시민들이 정치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기존의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넷상의 일반시민들의 정치활동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근삼 (지학관대학)